

살아 계신 하나님께 영광!

희귀 질환으로 말 못하고 걷지 못했던 아들이 시공 초월한 권능의 기도로 말하고 걷게 된 인도 델리만민교회 만투 쿠마르 성도의 간증.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시리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선물, 권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권능의 역사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준다.

2023 아동·학생주일학교 교사 강습회

여름방학을 앞두고 진행한 총회 주관 교사 강습회는 광주, 대전, 구미, 밀양, 천안, 공주, 청주, 익산, 남포항 등 지교회에서도 함께했다.

“권능을 체험하는 신앙생활, 행복해요”

질병이 치료되고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는 등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참 자녀로 거듭나는 신앙생활이 행복하다는 성도들의 간증.

# 만민뉴스

제996호 2023년 6월 25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희귀 질환 윌슨씨병으로 말 못하고 걷지 못했던 아들이 이제는 말도 하고 잘 걷습니다!”

제 아들 무나 쿠마르(14세)는 정상적으로 태어나 다른 아이들과 같이 평범하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7년 전인 2016년 어느 날, 당시 일곱 살이던 아들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손을 떨더니 점차 말하는데도 장애가 오고 침을 흘렸지요. 혼자서는 음식을 먹지 못했고 자주 넘어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상 증세가 점점 심해져서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며 진찰받았지만,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걸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게 되어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지요.

2022년 3월, 마침내 인도 북동부 비하르주 주도 파트나에 있는 큰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아들이 윌슨씨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남서부 고아주에 가서 일했지만 제가 번 것으로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지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니 아들의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어만 갔고, 안타깝고 막막한 현실 앞에 저는 망연자실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실낱같은 희망도 보이지 않던 제게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해 9월에 고아주에서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주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것이었지요. 이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이후 아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2023년 2월, 유튜브 검색을 하던 중 기도 받고 치료된 영상들을 보게 되었는데 GCNTV HINDI 채널이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곧바로 적혀 있는 연락처에 전화하였는데 친절히 설명을 들으며 아들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에 온 가족이 델리만민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GCNTV HINDI를 통해 만민중앙교회 예배에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주일 대예배 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지옥' 설교를 듣고, 저녁예배 때에는 이수진 목사님의 '욥기 강해' 설교를 들으며 하나

님의 뜻을 알아가니 믿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기도하는 중에는 아들이 치료되는 환상도 보았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에 참석해 꾸준히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으며 기도해 나아가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예전에는 음식을 흘리기 때문에 먹여 주어야만 했는데 누구의 도움 없이도 음식을 흘리지 않고 혼자서 잘 먹었으며, 어떤 말도 하지 못했는데 “아빠!”라고 저를 부른 것입니다.

수년 만에 아들로부터 “아빠!” 소리를 들은 감격스러운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욱이 지난 5월 26일, 만민중앙교회 금요철야예배 은사 집회에 참석해 이수진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뒤로는 자주 넘어지던 아들이 넘어지지 않고 잘 걸어 다닙니다. 이뿐 아니라 델리만민교회 일꾼과 영상 통화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 모두가 참으로 행복했지요.

저 또한 다리 골절 수술 후유증으로 통증이 심했는데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통해 통증이 사라져 지금은 달리기도 잘합니다.

희귀 질환에 걸린 아들의 치료비를 구할 수 없어서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던 제게 먼저 찾아와 주신 주님, 크신 권능으로 아들을 치료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만투 쿠마르 성도**  
(38세, 인도 델리만민교회)



‘윌슨씨병’은 우리 대사 이상으로 인해 간, 뇌, 각막, 신장 및 적혈구에 구리가 침착되어 생기는 보통염색체 열성 유전질환으로, 우리 족적에 따른 증상들은 나이가 든 후(5~15세) 나타나는데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희귀 만성 간질환이다.

소변에서 구리 양이 정상 2~3배 이상 검출되고 있음

윌슨씨병에 합당한 소견임



당회장 이재록 목사

# 권능 위에 권능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요한복음 14:12)

마음이 성결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의 차원에 가까이 이룰수록 권능 위에 더 큰 권능들을 더해 주시지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권능은 언제나 선한 열매가 가득하여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속히 권능의 차원에 들어가 하나님께 속한 권능을 행하며 살아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 1.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는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하는 것입니다(요 14:21).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 그 사랑을 받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시는 역사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요 16:23). 이 차원은 아직 권능 받기 이전의 단계로서, 권능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할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일서 3장 21~2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지는 우리의 양심이 증명합니다. 만일 자기 마음이 진리에 비추어 볼 때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이 오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뻐시게 못 하니나...” 말씀한 대로,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구원받기 위한 믿음의 차원을 넘어 완전한 영의 믿음, 즉 그리스도의 믿음을 의미하지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드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 기꺼이 버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불같은 기도가 꼭 필요하지요(막 9:29).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모든 계명을 지키길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완전한 영의 믿음을 소유하고 영혼들을 위해 불같은 기도를 무수히 쌓을 때 비로소 하늘의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권능의 정의와 그 증거

권능은 권세 있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란 사람으로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믿음의 힘입니다. 또한 권세란 하나님의 정하신 임위 있고 영광스러운 힘이며, 영계에서는 죄가 없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성결 그 자체라고도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모든 마음의 악과 비진리를 버리고 성결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면 영적인 권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권능은 능력과 함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입는 것이기에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 희한한 능력과 기이한 일이 따르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1) 표적(表蹟)

표적이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경이 눈을 뜨고 병어리가 말하며 들리지 않던 귀가 들림은 물론, 앓은뱅이가 일어나고 짧았던 다리가 길어지며 굽었던 허리가 펴지고 소아마비나 뇌성마비가 온전해지는 역사 등이 이에 속하지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한 것이란 가벼운 질병이 아니라 불의의 사고를 당했거나 선천적으로, 또는 부모나 자신의 실수로 신체의 어떤 기관이 마비되거나 퇴화하여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지요.

이처럼 모든 약한 것을 온전케 하는 것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신유의 은사는 성령의 불로 아픈 부위나 질병의 균을 태워 낮게 할 수는 있으나, 그런 병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표적에 해당하지 않지요. 또 신유의 은사는 성결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지만, 권능에 속하는 표적은 마음의 악을 온전히 버려 참마음을 이뤄야 받을 수 있습니다.

### 2) 희한한 능(能)과 기이한 일

성경 상 희한한 능의 대표적인 예로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기도해 주지 않고도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고 기도해 주면 직접 기도해 주는 것과 동일한 역사가 나타났지요(행 19:11~12).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기에 돌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실 수 있다 했고(마 3:9), 마른 뼈들로도 군대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겔 37장). 또한 악한 발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나귀의 입술을 열어 말하게 하시고(민 22:28),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기도 하셨지요(왕상 17:6).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을 때 천사를 보내 그를 구해 주셨고(행 12:7~10),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에 갇혔을 때는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가 풀어지게 하셨습니다(행 16:26).

기이한 일로는, 모세가 행한 애굽의 열 재앙과 예수님께서 썩팍 못 하던 중풍 병자를 치료하신 일(눅 5:17~26)을 들 수 있지요.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도 희한하고 기이한 일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 3) 기사(奇事)

기사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천기를 움직이는 것에 해당하는 일들로 주로 기상현상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름을 움직인다든가 비를 오게 하거나 멎게 하는 것, 천체를 움직이는 것 등이 이에 속하지요.

성경을 보면 사무엘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뢰와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http://www.manminnews.com)

만민중앙교회  
대표전화 02) 818-7000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 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및 관련 문의: 02-818-7236

**| 이재록 목사의 부흥성회 설교집 |**

URIM BOOKS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

비를 보내 주셨고(삼상 12:18),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구하자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습니다(왕하 20:11).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비가 내렸지요(약 5:17~18). 이처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들의 간절한 믿음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3. 권능 위에 권능의 차원

권능 위에 권능의 차원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을 대기업 회장으로, 우리를 그의 자녀들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만일 회장의 자녀 중에 한 자녀가 아버지 회사에 입사해 능력이 탁월할 뿐 아니라 어떤 일이든 아버지에 속 들도록 기대 이상으로 일을 잘 처리한다면 회장인 아버지는 장차 그 아들에게 그룹을 맡길 생각으로 여러 계열사를 하나씩 물려주다가 나중에는 그룹의 경영권 자체를 물려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들이 회장의 경영권을 물려받은 뒤에는 그 이전과 어떤 차이가 생겼을까요? 이제는 경영권을 가졌으니, 아버지의 결재 없이도 임의대로 일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이 어찌하든 회사를 더 크게 이뤄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 위에 권능의 차원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녀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고유한 신성(神性) 자체를 부여해 주시는 것,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사 42:1 ; 요 10:35~38).

### 4. 권능 위에 권능을 받으면 나타나는 역사

첫째, 하나님 뜻 가운데 죽은 자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무나 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요 5:20~21).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고(요 11:43~44), 나인이라는 성에서는 이미 죽어 장사를 지내기 위해 관에 실려 나가는 어느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으며(눅 7:11~15), 회당장 아이로의 딸을 살리셨지요(눅 8:54~55).

성경에는 예수님 외에도 구약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린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받아서 행한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에서 축복받을 만한 사람을 향해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향해 말씀으로만 명하신 것과는 달리 이런저런 행동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야는 죽은 아이 위에 자기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부르짖었으며(왕상 17:21), 엘리사도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렸습니다(왕하 4:32~35).

사도 바울은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릴 때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았고(행 20:9~12), 베드로는 다비다를 살릴 때 다른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해 일어나라고 명했습니다(행 9:40).

이처럼 예수님 외에 다른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가 하면, 특이한 행동을 취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과는 달리 그들이 죽은 사람을 살린 기록은 한 번씩밖에 나오지 않지요.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받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항상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람들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둘째, 말씀으로 창조의 역사를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처럼, 말씀으로 창조의 역사를 베푸는 권능을 받으면 말씀 자체가 시공을 초월해 역사를 일으킵니다. 각종 뼈나 신체의 기관이 다시 생겨나거나 썩었던 신체의 부분이 늘어나는 등 무에서 유가 만들어진 경우이지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서는 한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고쳐 달라고 간청할 때 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백부장의 집에 가지지 않고도 하인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마 8:5~13). 단지 입술로 내신 예수님의 말씀이 공간을 초월해 그대로 역사 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도록 베드로에게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지요(마 17:27).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고(막 4:39), 한 중풍병자를 향해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명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마 9:6~7).

이처럼 말씀 자체가 생명력 있게 역사 되는 권능, 곧 말씀으로 명하여 창조의 역사를 베풀 수 있는 권능은 시공을 초월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능의 역사는 무한하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가능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권능의 역사를 온전히 믿을 뿐 아니라, 신속히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무수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포토뉴스

### 2023 아동·학생주일학교 교사 강습회

여름성경학교 및 하계수련회를 앞두고 지난 6월 11일 주일 저녁예배 후, 사택 예배실에서 예수교연합성결회 총회 교육부에서 주관한 '2023 아동·학생주일학교 교사 강습회'가 있었다.

이날 유튜브 생방송으로도 진행해 광주, 대전, 구미, 밀양, 천안, 공주, 청주, 익산, 남포항 등 국내 지교회에서도 현장 및 랜선으로 함께했다. 교육부 조수열 목사의 사회로 시작한 강습회는 아동과 학생 심리를 다룬 이미경 목사와 영

적인 교사에 대한 황금란 목사의 강의 후, 만민 기도원 이복남 원장의 성령 충만 기도회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교사로서 갖춰야 할 자격들을 마음 깊이 새기며 주님의 선과 사랑으로 아동, 학생들을 인도할 것을 다짐하였다.



## “대상포진을 치료받았습니다”

지봉주 집사 (61세, 2대대 9교구)

지난 4월 20일, 오른쪽 허벅지에 약간의 쓰라림과 통증이 있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5월 8일에 그 부위가 붉어지며 작은 수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병원에 가서 진찰받으니 ‘대상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처방 받은 약을 먹어도 증상은 호전되지 않고 번져만 갔지요.

때마침 그날부터 작정 다니엘 철야가 시작해 저는 아버지 하나님께 대상포진을 치료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먼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며 남은 약을 버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했는데 그리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죄송했지요. 제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협력해 선을 이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대상포진이 있는 부위에 지속해 무안 단물을 뿌렸지



요. 그러자 점차 수포가 가라앉고 꾸덕꾸덕해지며, 붉은 피부도 살색으로 변해갔습니다.

교구장님께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 받은 뒤에는 신속히 치료되어 깨끗해졌지요. 할렐루야!

제 신앙을 점검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협력해 선을 이뤄 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허리협착증, 이명, 위염, 무릎 수술 후유증까지 치료받았어요!”

박미자 성도 (65세, 중국 2교구)



약 20년 전, 저는 2층 침대에 올라가다가 떨어져 허리뼈 하나가 부러졌습니다. 병원 치료는 받지 못하고 침을 맞으며 근근이 생활해 오던 중, 7년 전부터는 허리협착증까지 와서 통증 때문에 허리 보호대를 착용해야만 생활할 수 있었지요.

그러던 중 올해 4월 9일에 고모의 전도로 만민의 양 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등록한 날부터 저를 뜨겁게 만나 주셨습니다. 교구장님께 권능의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받았는데, 엉덩이에서부터 다리까지 전기가 흐르는 듯 찌릿찌릿했던 증상과 뼈근했던 통증이 싹 사라진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신기하고 기뻐합니다. 이처럼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체험을 하고 4월 15일, 교구 식구들과 함께 권능의 현장인 무안만민교회를 방문할 때는 여전히 허리 통증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치료받고자 허리 보호대를 착용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무안단물터에서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받은 뒤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허리 통증이 사라져 온몸이 날아갈 듯 가볍고, 무안단물에 발을 담근 후에는 왼쪽 귀 이명을 치료받은 것입니다.

사실 저는 13년 전에 아들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아 왼쪽 귀에 이명이 와서 항상 ‘웅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작은 소리로 말하면 재차 물어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요. 그런데 무안단물에 발을 담근 후 13년 된 이명 증상이 사라지고, 작게 말하는 소리도 잘 듣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2년 전에 오른쪽 무릎 연골 수술을 받은 뒤로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절걱절걱’ 소리가 났는데, 전혀 소리가 나지 않고 무릎도 편안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1년 전부터 위염으로 속이 쓰리고 소화도 안 됐는데, 더 이상 속이 아프지 않고 소화도 잘됩니다.

이처럼 저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모든 질병을 단번에 치료해 주시며 뜨겁게 만나주신 살아 계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 “눈 밑과 볼 쪽의 심했던 안면근육 경련이 사라졌어요”

5월 중순 경부터 눈 밑과 볼 쪽으로 떨림 증상이 심했습니다. 상대방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얼굴 떨림이 심해 마스크를 벗고 대화할 수가 없었지요.

저는 작정 다니엘 철야에 참석해 저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에게 불편했던 마음과 지성전 주일 국수 봉사하면서 일꾼들을 불편해했던 마음이 떠올랐지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해 회개하며 화평함을 이루고자 마음 다해 기도하였고, 얼굴 떨림 증상 치료를 위해 꾸준히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 기도(음성과일)를 받았습니다.



김신애 권사 (63세, 3대대 21교구)

그 뒤 일꾼들과 지성전 청소를 함께하는데,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잠시 눈을 붙이고 일어나 거울을 보았는데 놀랍게도 심했던 얼굴 떨림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는 30년 이상 위장병으로 인해 음식을 먹으면 고통스럽고 소화가 안 되었는데 무안단물을 활용한 뒤 깨끗이 치료받은 체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며 신앙생활 함으로 참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어방동1099-2 JJ빌딩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010-6425-8705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령천서로 57 광명빌딩 7층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3927-7526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6320-5984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4547-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환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예천동 650-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장천동 팔마로11-5 3층 ☎061)745-1117, 010-66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청운로 129 향야빌딩 3층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망마로 10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4-5816, 010-4849-1479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령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6772-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거룡2길 53-1 2층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종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330-31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9636-797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서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